4. 외환이해

1. 정리

-외환거래는 기본적으로 원칙적 허용에 예외적 규제이다.

현재 개인의 환전 규모 제한이 없지만 해외여행 시 1만불 이상 소지 시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비상초치권(safe guard)

기재부 장관 권한으로 외환 거래에 대한 제한을 걸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

1)속지주의: 대한민국 내의 외환 거래

2)속인주의: 우리나라 거주자의 외국에서의 외환거래

3)보호주의: 대한민국의 이익과 관련된 외환거래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 비거주자 구분

->2년 이상 해외 거주 여부

->해외 영업활동 여부(기간 상관 없음)

->외국 소재 국제기구 근무 여부

\*외국인의 국내 거주자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여부

->영업활동 여부(기간 상관 없음)

-은행에서 건당 1만 달러 이상 환전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유학생 연간 경비는 연간 10만 달러까지만 인정되고 넘어가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국내 은행간 외환 거래는 주로 서울외국환중개를 통해서 발생한다.

-환전영업자 등록은 관세청에 등록한다.(2020년 개정)

-환전상은 원칙적으로 외환 매입만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2천 달러 이내에 거주자 매도 가능,

비거주자는 매각 영수증 범위 내에서는 한도 없이 외환 매각 가능

(만약 비거주자가 매각 영수증이 없다면 1만불 이내에만 매각 가능)

-증빙 없는 외국환 송금은 건당 5천 달러에 한정한다.

-증빙 없는 외국환 송금 수령은 2만 달러(동일 날짜, 동일인물, 동일점포 기준)에 한정한다.

초과시 취득 경위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다만 해당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한다.

-외국환 은행의 주요 업무

\*5천 달러 초과 송금 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연간 5만 달러까지 증빙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송금 업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외환 자본 거래

해외주식 취득, 외환 예금, 해외 부동산 등 취득

-외환시장

\*환(換)이란?

->원거리에 있는 사람 사이의 금융 거래를 중계자(은행 등)을 통해 결제하는 수단

\*환의 종류

내국환, 외국환

우리는 여기서 주로 외국환을 다루게 된다.

-외환시장 참여자

-> 고객, 외국환은행, 외환중개인(은행간 거래 중개)

->우리는 보통 은행간 거래에 관한 외환시장을 다루게 된다.

-우리나라의 외환거래는 미국 달러만 거래되기 때문에 타국 통화에 대해서는 달러 환율을 이용해서 교차환율을 산정한다.

-재정환율: 차익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이론적인 환율

-환율 표시 방법

\*two-way quote 방식: 외환 매입 환율과 외환 매각 환율을 동시에 고시하도록 한다.

-선물환율의 설정 방법: 금리평가이론

선물 환율은 미래 시점의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의 환율에 대해서 개별 국가의 결제 시점까지의 금리를 계산해서 산정한다.

근데 현물환율은 계속 변화해서 계산하기 복잡해져서 선물환율과 현물환율 차이인 swap point, swap rate를 이용해서 선물환율을 표시한다.(기준:bp)

-spot시장(=value spot 거래)

2영업일 이내에 외환의 인수와 결제가 이뤄지는 거래

\*거래 당일이나 1일 이후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2영업일이 걸리는 value spot 거래를 실행한다.

-선물환 시장

계약은 현재 이뤄지고 인수, 결제는 미래시점에 발생하는 거래

성격 - > Outright forward 거래: 매수나 매도 포지션 중 한쪽만 결정하는 선물환 거래

일반선물환 거래: 실제 실물의 인수도가 발생하는 거래

NDF(차액결제선물환) 거래: 실물 없이 계약상 환율과 결제 시점의 환율과의 차액만 정산하는 거래

\*선물환거래 = 현재시점에서 미래에 결제될 환율을 고정시키는 거래

-해외의 NDF거래가 활발한데 특히 뉴욕시장에서 많이 거래된다. 그래서 전날 뉴욕시장의 원/달러 NDF거래 종가가 다음날 국내 외환시장의 원/달러 현물환율 시가 결제에 영향을 준다.

국내 현물환율 시초가 = 전날 국내 현물환율 종가 + 전날 NDF 환율 변동 폭 + SWAP point

-선물환 시장에서의 은행의 의사 결정

고객의 선물환 매도 시, 은행은 선물환 매입 포지션을 하게 되어 환위험 노출(long position)되어 환위험 해소를 위해 현물환 매도로 환위험을 헤지 한다.

-외환 스왑(FX SWAP거래)

계약시점과 거래 시점이 다른 복수의 거래를 한번에 계약하는 거래

\*현물,선물 거래

현물 매입 + 선물 매도

현물 매도 + 선물 매입

\*선물,선물 거래

\*현물,현물 거래(spot-tom)->결제일이 1~2일 차이이기 때문에 현물로 취급한다.

-통화 스왑(스와프)

거래 당사자간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이후 원금을 재교환 하는 거래

(외환 스왑과의 차이: 외환스왑은 금리차이를 적용하지만 통화스왑은 원금을 재교환한다.)

이때, 원금을 그대로 교환하기 때문에 양측이 서로의 통화에 대해서 일종의 수수료를 지출하게 된다.

Ex: 은행 달러 유동성 위기로 원화를 이용해 통화 스왑을 타 은행과 진행하는 경우 달러 이자를 많이 지불하고 원화 이자를 적게 받게 된다.(원화 기준 금리: CRS, 달러 기준 금리:LIBOR금리)

CRS금리->LIBOR금리와 연동되는 원화 고정 금리

이때, 은행의 bid-ask 금리가 표시되어 해당 금리 고시에는 이 값의 평균값인 mid로 표기된다.

-통화스왑 시장의 외국인 움직임

금리차익 목적의 통화스왑 거래 메커니즘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내 경제의 움직임에 따른 외국인 움직임이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에서 더 빨리 발생한다.

따라서 갑작스런 국내 채권 매도로 국내 채권 가격 하락이 발생해 채권 수익률이 크게 상승한다면 국내 경제의 악재에 대해서 외국인이 반응한다고 보면 된다.

Why? 외국인의 움직임이 현재 시점의 상황에 기반해서 움직인다는 가정을 하는가? 대출 껴서 투자해서 그런건가?

* 외국인 투자는 향후 추세를 보지 않고 현재 시점을 기반으로 하는 안정적인 수입을 목표로 한다고 보면된다.

근데 이게 맞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일반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상황에서 정교한 데이터로 향후 추세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한 결정에 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margin call: 선물 거래에서 가격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증거금

-한국 통화선물시장: krx(한국 거래소) 내에 존재

-외환선물거래의 미결제 수량

->결제 만기가 되지 않아 청산되지 않은 거래 총량

-외환선물거래의 가장 큰 기관 : 은행(외환업무량 자체가 많아서 헤지 목적으로 선물거래에 가장 큰 기관이다.)

-통화선물시장은 원금이 아닌 증거금을 기반으로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증거금율의 역수로 레버리지가 발생해서 절대로 하면은 안된다.

-

2. 궁금증 정리사항

1. 우리나라의 msci 선진국 시장 편입과 관련해서 이전에 외환시장의 문제점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해당 사안과 관련된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큰 문제점이 궁금하다.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으로 환율조정 근데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기도 하고 환율의 외부 충격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